

# 생협진영의 도농상생 전략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규호 ·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2014  
대한농정  
대토론회

# Contents



**I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II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III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1) 식량위기는 예견된 재난이다

### - 세계 곡물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와 곡물가격 불안정성 증대

-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 : 지난 4월 사상 최초로 CO<sub>2</sub> 농도 한 달 평균 400ppm 초과
- 급속한 농지 감소 : 세계 인구 매년 약 1억 명 증가, 농지는 매년 600만ha(한국 농토 3배 이상) 감소
  - ▶ 다국적기업과 투자펀드의 투기 대상이 식량에서 농지로 확대(global land grabbing)
  - ▶ 제 3세계 소농의 위기 (이농자 연간 1,500만명)
- 식량의 에너지화와 식생활 패턴 변화(육류소비 증가)
- 경제위기와 곡물시장의 독점 구조,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 등

### - '오일쇼크' 를 능가하는 '식량쇼크' 의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

- 2008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농업생산성 증가에 따른 '값싼 먹거리' 시대는 종식
- 식량위기는 예견된 재난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식량자급력이 국가의 주요 과제로 등장
- <식량-에너지-환경>과 복합적 관련을 맺고 있는 농업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필요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계속 감소 추세

-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으로, 2013년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3.1%  
 >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

<2013년 곡물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단위: %)

| 구분                | 전체   | 쌀    | 보리쌀  | 밀   | 옥수수 | 콩    | 서류    | 기타   |
|-------------------|------|------|------|-----|-----|------|-------|------|
| 곡물자급률<br>(사료용 포함) | 23.1 | 89.2 | 19.9 | 0.5 | 1.0 | 9.7  | 96.2  | 8.4  |
| 식량자급률             | 47.2 | 89.2 | 21.0 | 1.1 | 4.5 | 29.1 | 103.5 | 12.5 |

## - 정부의 정책적 시선은 어디에?

- 교역 협상과 물가조절의 수단으로 다루지는 농업 정책
- 무역자유화와 개방경제 정책 기조 하에 쌀을 포함 국내 농업 전반이 시장개방 압력에 노출
- 최근의 저물가 기조 속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자리하고 있음

<2013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 구분         | 전체  | 농축수산물 | 공업제품 | 집세  | 공공서비스 | 개인서비스 |
|------------|-----|-------|------|-----|-------|-------|
| 소비자물가지수(%) | 1.3 | -0.6  | 0.9  | 2.7 | 0.7   | 1.6   |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2) 지속불가능한 우리 '농'(農)의 현실

### -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 빠르게 감소하는 농가인구 : 작년 전체 가구에서 농가 비중은 6.3% 수준
  - ▶ 1970년 1,442만2천명(44.7%)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1985년 1,000만, 1995년 500만, 2011년 300만명 선 무너짐
- 농가당 가구원수도 계속 감소 : (2010년 2.6명 -> 2011년 2.55명 -> 2012년 2.53명 -> 2013년 2.49명)
- 빠르게 늙어가는 농민
  - ▶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이 1983년 5%에서 2013년 26%로 크게 증가
  - ▶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현실
- 커다란 도농간 소득격차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2012년 57.6%, 2013년 62.5% 수준)
- 농가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계속 줄어듦 :
  - ▶ 2009년 31.5% -> 2010년 31.4% -> 2012년 29.4% -> 2013년 29.1%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 어디서 농사지를 것인가?

- 각종 개발압력에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농지 :
  - 지난 30년간 서울 면적의 7.5배인 약 46만 ha 농지가 사라짐  
(2010년 1,72만ha -> 2011년 1,70만ha -> 2012년 1,73만ha -> 2013년 1,71만ha)
  - 2020년까지 연간 1만ha 정도의 농지가 계속 전용될 것으로 전망
- 한번 훼손된 농지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문제

## -농업살림을 위한 밥상살림(먹거리운동)의 중요성

- 정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 추진으로 식품산업 전체 생산액은 계속 증가  
(2008년 85조원 --> 2012년 113조원)
- 식품산업의 성장과 국내농업의 발전 간에 연관성이 매우 약해짐
  - 식품 수출보다 수입규모가 더 커 전체 식품산업 무역수지는 적자 구조
  - 식품제조업체 원료 사용량 중 국산 원로는 29.7%에 불과 (2008년 -21조원 --> 2012년 -27조원)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결식률과 외식률 증가, 1~2인 가구 증가 등
  - 지난 30년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절반 수준으로 감소 (2011년 71.2kg -> 2012년 69.8kg -> 2012년 67.2kg)
  - 대안먹거리운동(밥상살림운동)을 통한 국내농업 살리기 노력의 필요성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3) 도시는 지속가능한가?

### - 현대 도시의 두 얼굴

- 단위면적당 높은 밀도(사람, 물자, 자본, 권력, 정보의 집적, 집중)
  -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 생태계 파괴와 오염
  - 활력과 경쟁 <---> 관계의 단절, 공동체성 파괴

### - 우리의 도시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 우리나라 총 인구(5,114만여 명) 91.6%(4,683만여 명)가 국토 면적(106,106km<sup>2</sup>)의 16.6% (17,593km<sup>2</sup>)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
- 전체 인구 46.3%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집중
- 식량, 에너지, 자연자원의 자급과 순환을 외면한 도시의 미래는 지속가능한가?
- 생태학적 한계(ecological limits)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한계(The Limits of the City)

### - 도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농(農)의 일방적 희생을 대가로 한 초고속 도시화 과정의 결과 도시 초과밀화와 농촌 공동화가 발생
-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위한 도시에 대한 관심 증대
  - 콘크리트, 불도저를 앞세운 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성장(팽창, 경쟁)도시' 에 대한 반성 --> '성장관리도시' 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관심
  - 마을, 공동체, 협동, 귀농귀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 1. '도농상생' (都農相生)의 시대적 의미

## 4) 도농상생 : 도시와 농촌의 서로살림의 길을 찾아서

### - 도농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은 시대적 과제

- 도시가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농촌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건강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생의 사회,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 도시와 농촌의 서로살림(相生)의 길 찾기

- 현재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도시가 가지고 있다  
도시의 선택 여하에 따라 농촌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반면, 정부 정책 전환과 사회 흐름을 바꿔내는 힘 역시 도시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농업살림의 방향으로 도시민들의 인식과 판단, 실천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 도농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시작점은 도시 속에 '농심' (農心)을 심는 일이다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1) 한국 생협 현황과 역할에 대한 기대

#### - 먹을거리에 기반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주요 생협단체 현황

(2014년 9월말 기준)

| 구분       | 조직현황           |            |            | 사업현황           |
|----------|----------------|------------|------------|----------------|
|          | 조합원수           | 단협수        | 매장수        | 2014년 누계(1-9월) |
| 한살림      | 465,772        | 21         | 180        | 2,563억         |
| icoop    | 212,550        | 79         | 153        | 3,581억         |
| 두레       | 168,927        | 28         | 100        | 828억           |
| 행복중심     | 33,667         | 14         | 25         | 165억           |
| <b>계</b> | <b>880,916</b> | <b>142</b> | <b>458</b> | <b>7,137억</b>  |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 생협이 주목 받는 몇 가지 이유

- 생활과 협동의 결합을 통해 공공(公共)의 영역 확장 (ex.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 생활의 기본 소재(밥)로 조합원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맺음
- 사업과 활동의 병행을 통한 기본적인 자립기반 축적
  - ▶ 출자금, 협동사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 - 사적 자산의 공공화
- 폭넓은 대중조직 기반 : 풀뿌리 대중운동조직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구매력의 결집이 가진 힘 :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소비자 역할 재인식, 생산하는 소비자운동
- 다양한 조합원 참여 경험 축적
  - ▶ 물품개발 및 심의, 사업과 활동을 포함한 조직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 조합원 자주관리, 자주인증
  - ▶ 생협을 매개로 한 사회실천 활동, 협동경영체 운영에 대한 경험 축적 등
- 여성(주부)들의 역할 재인식
  - ▶ shadow work, unpaid work에 대한 재평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과 살림살이 경험의 사회화
- 바람직한 생활양식 실천 모델 개발 : 환경친화적, 계획적,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대한 경험과 정착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 생협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 **사회실천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과 정책 및 제도 변화 촉진**
  - ▶ 농업, 식량, 식품, 환경, 복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
  - ▶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국민농업운동의 주요 주체
- **도농상생 공동체사회 모델 제시**
  - ▶ 생산-소비, 농촌-도시의 경계 뛰어 넘기
-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
  - ▶ 농약, 환경호르몬, GMO, 방사능오염 등으로부터 건강과 생활 지키기
- **먹을거리 안전을 넘어선 식량자급 기반 조성 역할**
  - ▶ 주요 곡물(쌀, 밀, 콩, 보리 등) 자급운동, 농지살리기 운동, 토종종자 보존 운동, 사료자급 운동
- **경제적 대안을 매개, 촉진, 실현하는 역할**
  - ▶ 시장경제 보완 기능 :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가격 왜곡 구조 개선(ex. 배추값 파동)
  - ▶ 대안경제 모델 구축 : 신뢰에 기반한 협의적 가격결정 체계,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통한 호혜경제 실현
  - ▶ 대안경제 영역 지원 : 조직화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 2) 한국 생협에 담긴 첫 마음 : 농심(農心)과 모심(母心)의 만남

#### - 초창기 생산 환경과 생산자들의 마음(農心)

- 관행농(식량증산, 농산물가격안정 위한 녹색혁명)이 주류였던 시절 친환경농업은 정부는 물론 이웃농가로 부터도 불편한 존재로 취급
- 경제적 합리성의 차원을 넘어선 신념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절
- 종교적 배경과 농민운동적 경험을 가진 생산자(정농회, 가농, 기농 등)들,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농약 중독을 경험한 생산자들이 주도
- 당시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부족, 상당한 노동강도, 품질(크기,모양)의 불안정과 생산량의 부족, 낮은 가격 등의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

#### - 초창기 소비 환경과 조합원들의 마음(母心)

- 땅과 물, 자연을 살리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에 감동한 소수 도시 소비자들이 시작
- 크기, 모양이 일정치 않고,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충분치 않고, 이용도 불편한 상황(사전주문, 공동체 공급 등)에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이용
- 생협 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 주체로 역할 - 이웃에게 권유(홍보, 조합원확대), 지역조직 결성 및 운영, 도농교류 등 다양한 조합원활동 전개 등

#### - 생산과 소비가 함께 하는 도농상생의 공동체를 꿈꾸는 한국형 생협운동의 등장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3) 한살림 생협의 중심 가치와 현황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한집살림’ 하듯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게 하고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이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1986년 한살림농산을 시작하며)

밤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

지역살림

마음살림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 밥상살림을 통한 생활협동운동 → 도농상생의 공동체 실현

“부엌에 세계가 있다” - “밥 속에 우주가 있다”



### - 한살림의 농업정책

- 농업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농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 모습 만들기,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식량자급기반 확보, 유기농업과 환경농업,
- 기후·풍토에 맞는 농업, 복합농업, 지역순환형 복합형 농업 지향

### - 한살림의 직거래 원칙

- 생산자와 생산지 명확히 할 것, 생산자와 소비자간 적극적인 교류,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한 지역순환형 농업 실천 등

### - 현재 조직 현황 (2014년 10월 현재)

- 조합원 수 : 1988년 1500명 → 현재 47만 세대 - 매 주 1600명 조합원 증가
- 공급액 : 1988년 4억 → 현재 2,845억 원 / 출자금 457억 6천만 원
- 생산자회원 수 : 103개 생산공동체, 2,119세대 농가
- 생산약정 면적 : 1천만평 (전체 농지 0.2% 수준)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2014  
대한농정  
대토론회

### 4) 도농상생을 위한 한살림의 노력

#### - 도시 소비자들의 생산지 체험 및 일손돕기 활동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2014  
대한농정  
대토론회

##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도농교류 활동

### 단오잔치



###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 (1989년부터 시작)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2014  
대한농정  
대토론회

### - 미래세대에 대한 농업, 먹거리 교육

#### 어린이 생명학교



#### 유치원, 학교 급식활동



#### 어린이 요리교실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 - 농(農)에 대한 가치를 담은 식생활 교육

- 21개 생협 조직과 한살림연합 식생활교육센터에서 조합원, 시민, 교사(유아, 초중등), 생산자 대상 교육
  - 2011년 말부터 2014년 6월까지 40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이수
  - '농업의 중요성,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농촌현장 체험, 생산자로부터 이야기 듣기'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주먹밥 속 쌀은  
어디에서 오나요?

토종옥수수 먹으면서  
종자 이야기 듣기



양평군민 대상 식생활교육  
여주 금당리공동체에서  
땅콩수확 일손돕기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 - 식량자급력 향상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공동 노력

- 사료자급화 운동: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설립 및 발아보리가공공장 준공(2014. 10)



- > 수입 옥수수에 의존하는 사료의 자급화 필요성과 20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로 국내 보리생산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한살림과 축산가공생산자, 축산농가, 전북지역 보리생산자들이 함께 설립
- > 2013년 80만여 평 농지에서 1,200톤 가량 보리 수매 - 수입옥수수 전량 대체한 ‘우리보리살림사료’ 만들어 돼지에 급여, 키운 돼지 1만4천두 가량 조합원에게 공급
- > 2020년까지 우리보리살림사료 급여 축종 확대 계획(돼지 3만두, 육계 10만수, 산란계 25만수) 보리 농지 201만 평 살리고, 국산 보리 연간 3,000톤 수매 예정
- > 지역순환농업 실현 : 발아쌀보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퇴비로 공급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 •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조성

- ▶ 재해에 따른 손실 일부를 지원하여 생산 안정성을 도모하는 ‘생산안정기금’ 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가격안정기금’ 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절반씩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
- ▶ 생산안정기금(2014년 1-9월말) : 조성액 약 5억9백만원 / 집행액 약 1억 (연말까지 추가 집행 예정)
- ▶ 가격안정기금(2014년 1-9월말) : 조성액 약 5억9백만원 / 집행액 약 7천3백만원 (집행 해당 품목 - 수박, 찰옥수수, 방울토마토, 참외, 포도 등) (연말까지 추가 집행 예정)

### • 농지지킴이 운동 : 한살림 평화농장 만들기 운동(예)

- ▶ 생산자연합회와 소비자 생협조직(고양파주, 서울, 경기서남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3억 원의 자본금 마련
- ▶ 2016년까지 민통선 내 약 1만평 규모(구입 5천평, 임대 5천평) 친환경농지 조성, 민통선 밖에 1천 평 농지를 장기 임대받아 각종 도농체험시설을 만들 계획

### • 토종종자 보존 운동

- ▶ 토종 농산물 물품 취급 (건대추, 이분도통밀쌀, 토종팥고추, 조선오이 등 20여종)
- ▶ 토박이씨앗살림운동 준비 - 종자포(채종포) 통해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생산·재배력을 확인해 재생산 가능한 적정 생산비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종자포(채종포) 운영을 지원할 계획

### • 쌀 이용 장려 운동

- ▶ 한살림서울의 경우 작년(2013년) 쌀 이용 장려운동 ‘방가방가 반가마’ 캠페인을 통해 행사기간(3월~5월) 내 멍쌀 이용량은 전년 동월대비 3월 13.1%, 4월 26.2%, 5월 17.3% 증가  
누적 이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 도농상생과 먹거리 주권을 위한 사회실천 활동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 한살림의 경험 -

### 5) 성과와 과제

- 밥상살림, 농업살림운동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증대

<한살림의 농업살림운동 성과>

|             | 2012        | 2013        | 증감       |
|-------------|-------------|-------------|----------|
| 조합원수        | 346,500명    | 410,211명    | 18.4%(+) |
| 생산농가수       | 1,992호      | 2,048호      | 2.8%(+)  |
| 쌀 생산면적      | 3,055,212평  | 3,388,314평  | 10.9%(+) |
| 잡곡 생산면적     | 3,919,829평  | 4,532,588평  | 15.6%(+) |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 10,860,000평 | 11,640,000평 | 7.2%(+)  |
| 전체 농산물 출하액  | 595.81억원    | 696.42억원    | 16.9%(+) |

· IFOAM 주관 제 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 수상 (2014. 9)

‣ 상금 2만5천유로(한화 3천340만원)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유기농업 자립기반 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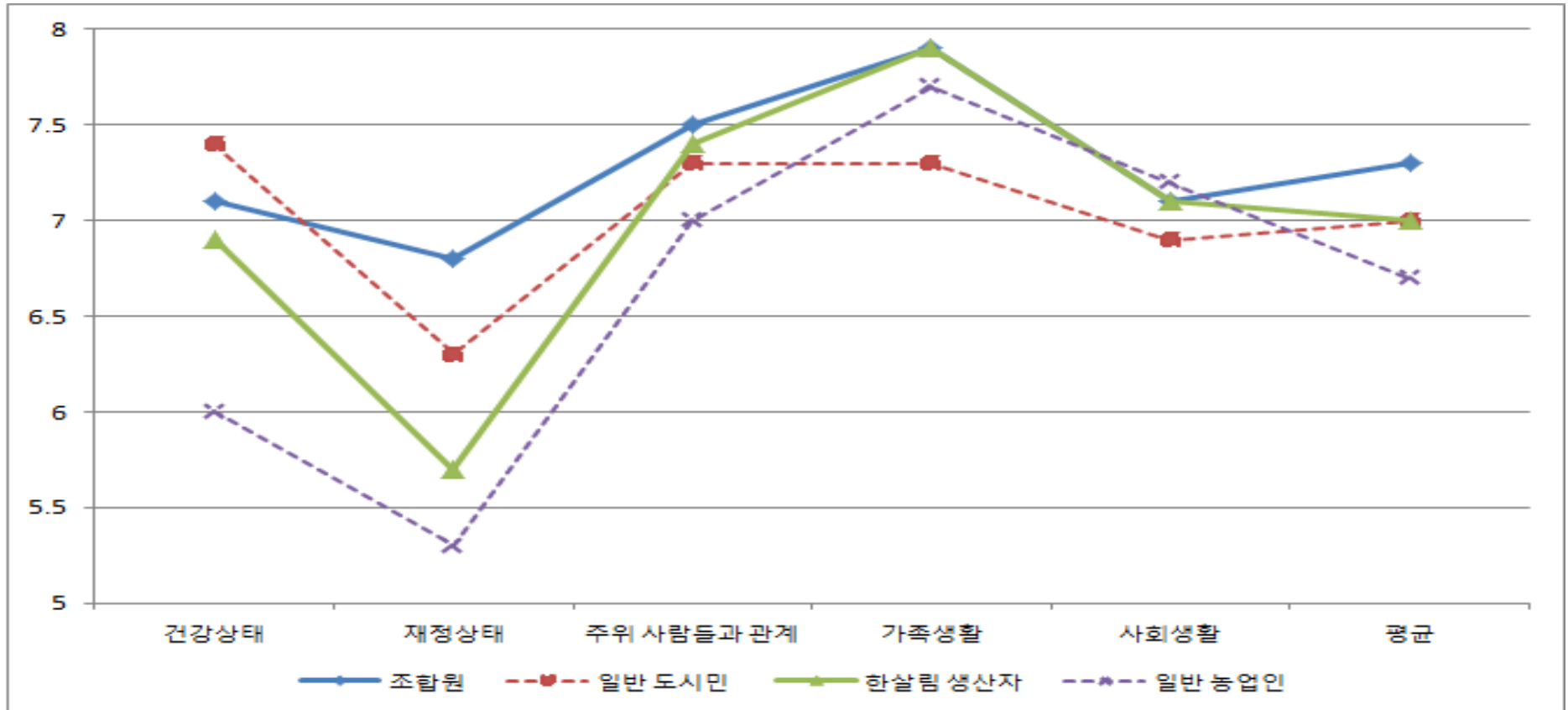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 의식조사에 나타난 농업살림에 대한 인식

▶ 2014년 7월부터 한달 간 조합원 5700여명, 생산자 1,200여명 조사

<한살림 조합원, 생산자가 느끼는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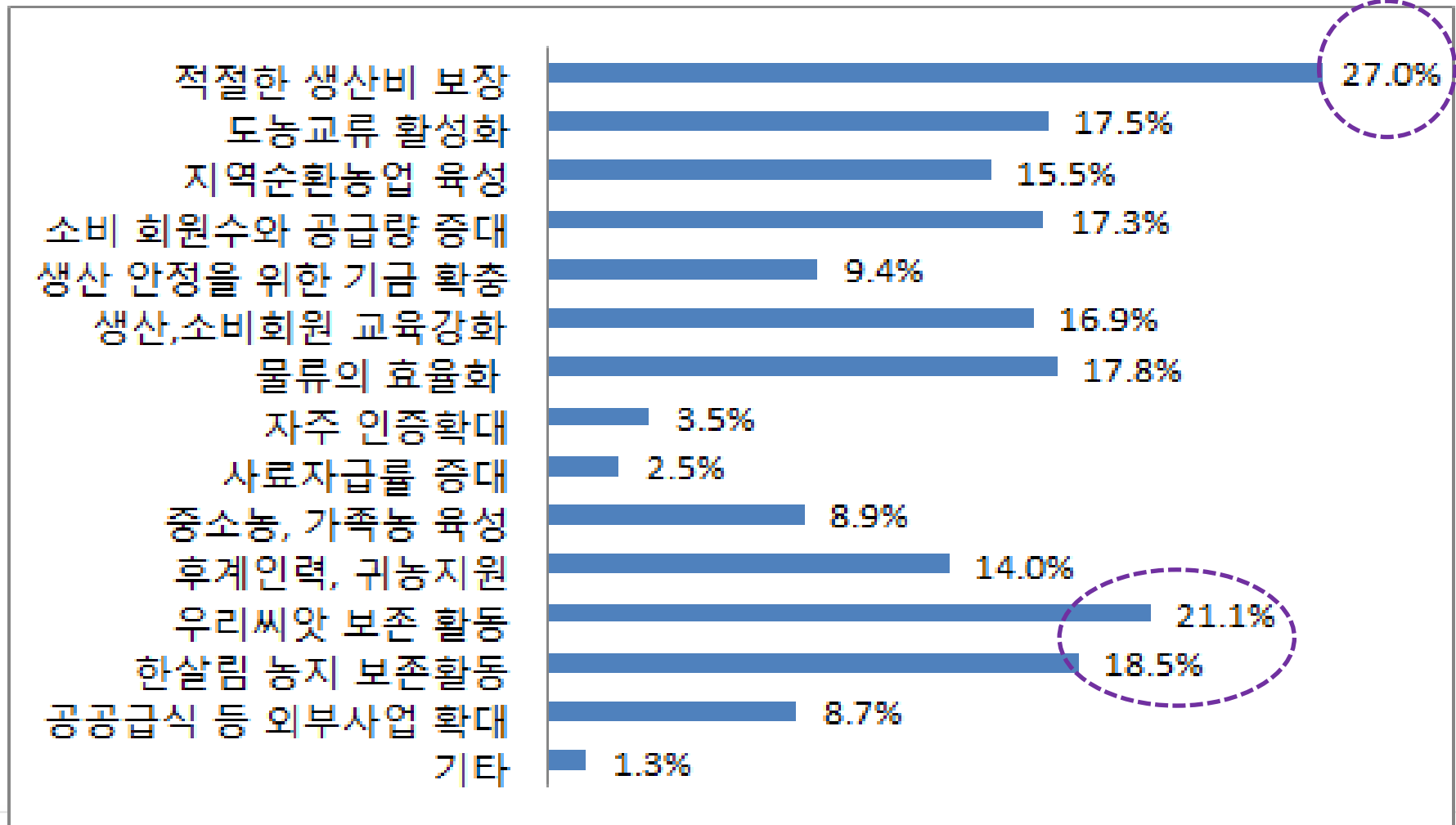


▶ 조합원 평균 행복도는 7.3점, 일반 도시민은 7.0 / 한살림 생산자는 7.0점, 일반 농업인은 6.7점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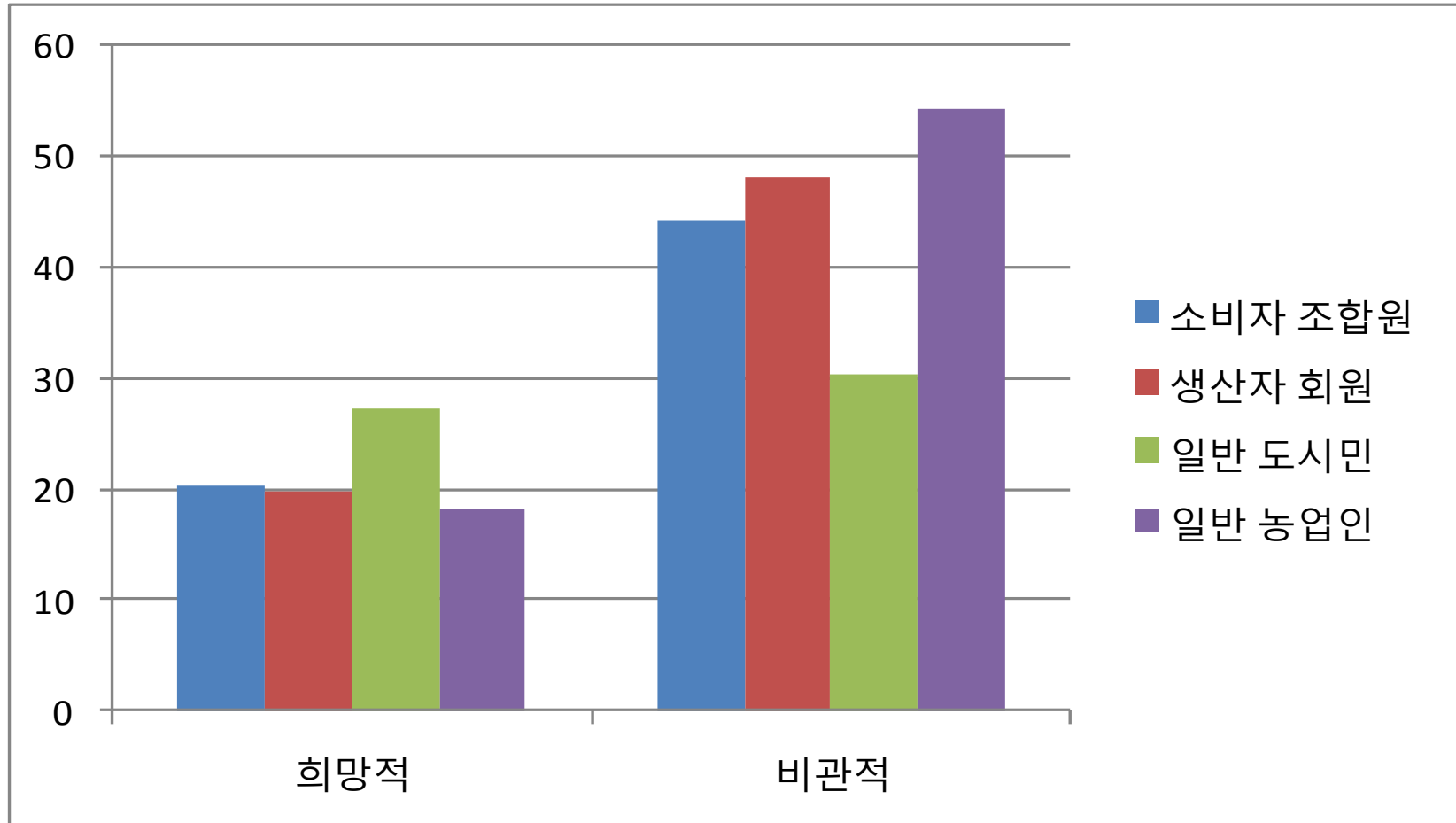
<농업살림을 위해 한살림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생각>





## 2. 도농상생을 향한 생협의 노력과 과제 - 한살림의 경험 -

### <한살림 물품 이용에 대한 조합원의 태도>



# 3.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외부의존형 경제, 부채경제, 투기경제, 거품경제가 만들어내는 장기 저성장 구조 속에서 소득증대를 통한 생존 전략은 한계
- 스스로(自)의 시대(自律, 自給, 自治, 自立, 自作, 自救, 自生...)를 열어가는 생활협동운동으로 지출감소 전략을 마련할 필요 (ex. 도농상생공동체)
- 도시의 반란(?)없이 도시와 농촌의 하모니는 가능한가?
-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농업담당 부처의 영향력은? 어떻게 농정 거버넌스를 짤 것인가? 농업살림을 위한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현실을 움직이는 주류 담론 속에서 농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가, 전문가, 단체, 미디어 환경은? 최근 선거구 개편 논의는 인간중심, 도시중심적 발상, 농업살림의 대안 영역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도시민들이 자기생존의 과제로서 농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생협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밑바닥, 가장자리, 틈새로부터)

### 3.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농촌의 끌어당기기 효과(pull effect)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도시의 밀어내기 효과(push effect)는 한계
-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도향촌(離都向村) 또는 귀농귀촌(歸農歸村) 시대가 열린다?
- 지난 2009년 3월부터 5년6개월 연속 탈서울 현상 발생  
전국 714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 도래
- 탈도시화의 흐름은 계속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농촌의 매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단순 교외화 또는 재도시화로 갈 가능성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2012년에는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도시지역 인구가 45만5660명 늘어남
- 어떻게 농촌의 끌어당기기 효과를 높일 것인가?

# 3.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 농(農)에 기반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사회를 위해

### • 복합위기 시대의 대응전략 변화

- ▶ 변화에 대한 예측과 사전 예방적 대응에서 예측 불가한 변화와 충격, 교란 상황에 대비한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 ▶ 회복탄력성은 변화와 충격을 흡수하면서 역경을 극복하여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

### • 농업은 경제, 사회, 심리, 생태적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계

- ▶ 위계적 경직성, 단절성, 획일성 --> 역동적 순환성, 관계성, 다양성
- ▶ 지역자립과 순환경제, 식량자급, 생태학적 완충기능, 인구생태계 조절 역할, 관용과 배려, 협동의 문화...
- ▶ 빠른 고령화와 100세 시대의 도래에 맞는 생활양식과 리듬, 삶의 거처로서 농촌, 농업이 가지는 의미 확인

### • 농업 희생(犧牲)을 넘어 농업 회생(回生)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 기후변화와 에코플레이션(ecology+inflation) 시대에 농업은 생산-소비-생활의 핵심 기반
- ▶ 도시 속에 농의 가치 확산과 농촌 속에 도시적 활력과 자원이 전달되는 과정의 동시 진행 필요
- ▶ 친환경, 직거래, 생협의 상품화, 관행화, 제도화 문제를 넘어 정체성 찾기
- ▶ 도시농업, 귀농귀촌, 팜스테이, 직거래장터, 꾸러미, 로컬푸드, 지역사회지원농업(CSA), 식생활교육, 생활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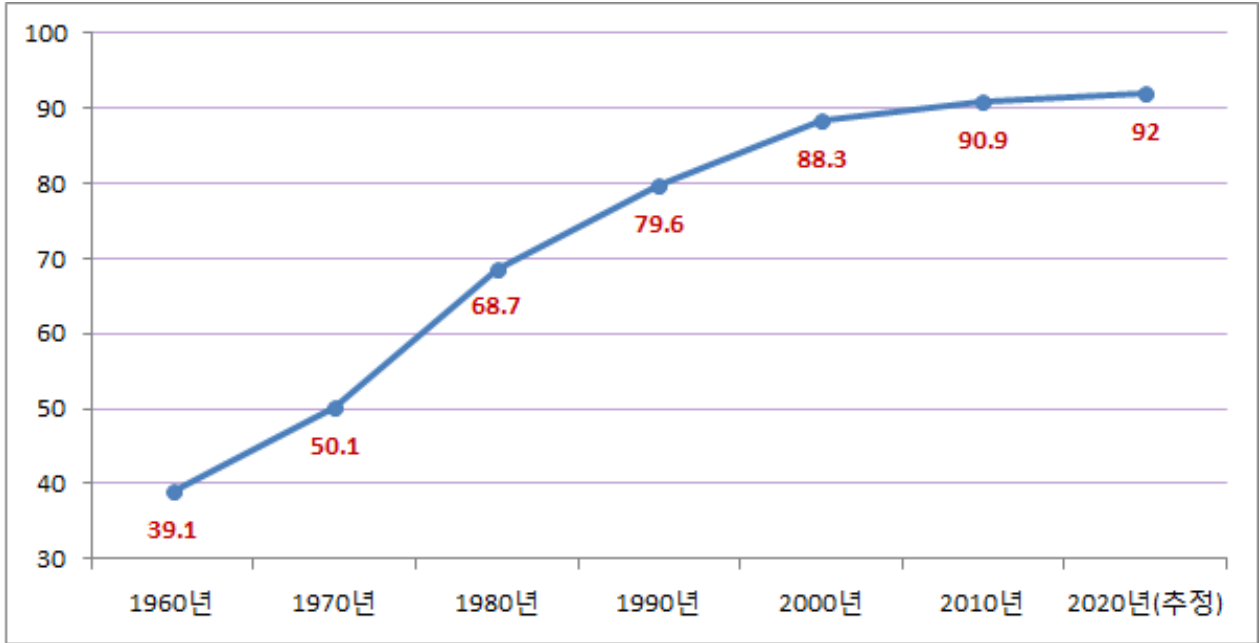
등 다양한 영역과 프로그램의 입체적 연결

# 3.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 자연생태계와 인구생태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농촌 현실
- 높은 도시화율과 빠른 고령화 추세
- 지금이 농업, 농촌, 농민을 통해 뿌리, 고향, 부모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마지막 세대?
- 얼마나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가?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화율>





#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서로살림의 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